

佛前에는 床卓石을 代身하여 切斷된 一片의 八角石燈竿石 위에 羅代的 作品으로 보이는 八角石燈中臺石 一枚를 올려놓아 注目을 끌었는데 前述한 靑石塔 一基가 同庵子 庭中에 遺存하는 點으로 보아 이들 石燈材 도 同寺 當初의 것으로 推定되었다. 이곳의 僧侶들은 이 石燈材에 對하여 그 由來等 全혀 아는 바가 없다 하는데 앞으로 他部分이 境內에서 發見될 것을 期待한다.

三、西側面 磨崖佛像

前記한 바: 同一花崗岩 西側에는 全高約 四m의 坐佛을 線刻하였다.

이 佛像은 華奢한 仰蓮蓮座위에 結跏趺座하고 妙觀察智印을 하여 兩脚을 左右膝上에 올려놓은 吉祥坐의 阿彌陀佛이다. 頭部는 橫廣하며 머리는 削髮하였고 肉髻는 적은 便이다. 顔面은 矩形에 가까울고 白毫는 없다. 兩耳는 肩上 가까이 내려졌으며 鳳眼은 斜으로 가늘게 線刻되었고 口鼻는 厚刻하였다. 口唇에 若干의 微笑가 어리었으나 眉間이 뚜렷하지 못하여 南側面佛像과는 다른 印象이었다. 衲衣는 偏袒右肩으로 腹腰部에만 돌렸는데 그 外部分은 全裸形이다.

蓮座는 前面에 蓮蕾를 上下로 配列하고 左右側에는 二、三重으로 配疊하였으며 蓮華座 밑에 雲形을 浮彫하여 天上世界에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線刻의 實例는 慶州 南山 三陵溪磨崖三尊佛(註)의 線刻像에서 볼 수 있으나 造成年代를 同時로 볼 수는 없다. 座高에 比하여 兩膝이 넓어서 安定感이 있으며 비록 畸異한 半裸形의 形式化한 線刻일지나 蓮座의 精妙한 手法이라든가 圖樣化한 寫實的인 影技의 「아이디어」가 注目되었다.

以上 兩佛은 造型上 相異點은 있으나 同一한 彫法으로서 羅未의 作品으로 推定되었는 바 今後 이곳의 諸佛蹟과 함께 再調의 課題가 될을 附言코자 한다.

[註] 慶州南山의 佛蹟(朝鮮總督府) 圖版四〇、四一參照

百濟의 有紋女瓦

洪 思 俊

이 女瓦(삼기와)는 昨年 四月頃 扶餘邑 舊衙里 所在 금강여관(扶餘分館 西側門)으로 通하는 扶蘇山登道 左側 道路邊이며 博物館에서 五〇m 距離) 敷地를 整理하던 中 地下 二尺餘에서 蓮花文瓦片(軒瓦)과 其他 無文平瓦破片和 함께 出土된 것이다.

우리가 普通 보는 百濟의 女瓦에서는 裏面에 麻布文이 있고 表面은 無文이거나 間或干支銘이 있다. 그리고 瓦質은 灰色이고 木炭粉이 混合된 것이 多數를 點하고 있다. 그러나 紹介하려는 이기와는 色態가 灰白色



이고 木炭粉도 없으며 特히 石英(차돌)粒이 比較的 多量으로 包含되어 있다. 表面 全般에는 上·中·下 三段에 橫으로 四個處에 紋樣이 있고 그 上部에 雲文에 類似한 것들이 板刻畫에서 찍어낸 것 같다. 上·下兩段에는 四重菱形文이 陽印되었으며 그 內面에 忍冬文樣이 있다. 中段은 亦是 四重陽線으로 된 四重四角形內에 四瓣의 蓮華文이 陰刻하여졌다.

以上 異例의 平瓦에 紋樣이 있음은 從來에 보지 못한 瓦當인물이 곳에 밝혀둔다.

[尺數] 瓦 上部幅 三·一 cm 瓦 下部幅 二八·五 cm
瓦 長 四一·七 cm 瓦 厚 一·五 cm